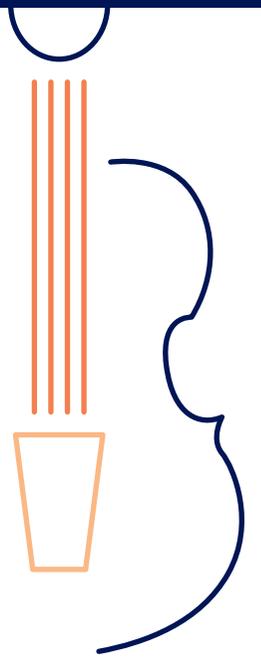


간담 서늘

청년 지역뮤지션
간담회

인천 및 부평에 대한 뮤지션들의 공감 TALK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이 서늘한 음악 관련 이야기

Contents



01

간담서늘
행사 개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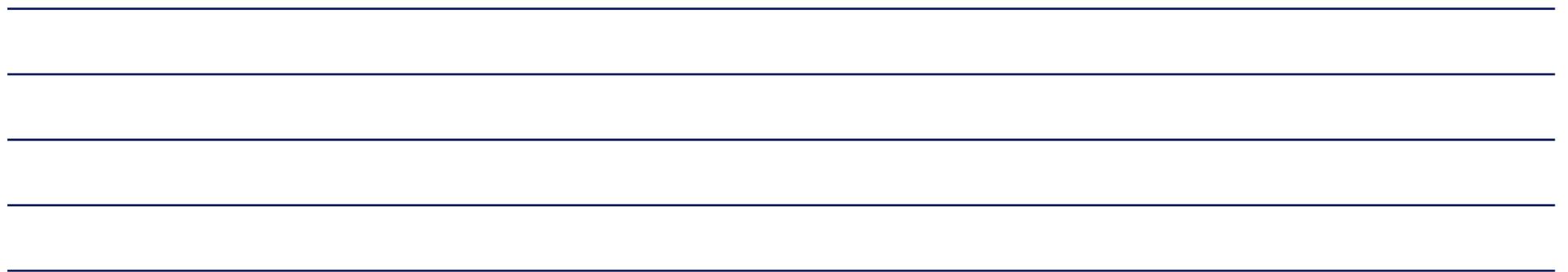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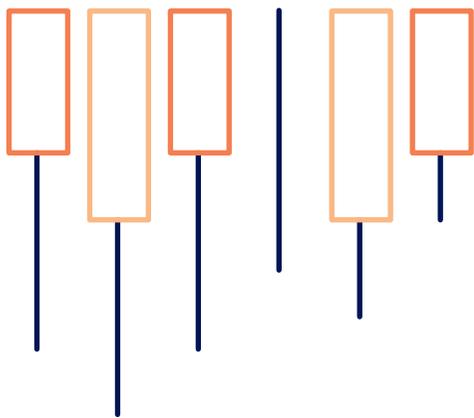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 소개

03

21~23년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 결과보고

04

음악 관련
의견 교류



01

간담서늘 행사 개요



행사명
청년 지역뮤지션 간담회 <간담서늘>

행사장소
문화공간 시소

행사대상
21~23년도 지역뮤지션 지원 사업 선정자, 인천·부평 청년 지역 뮤지션 등

관계자
이규영 전문가, 이진우 전문가, 부평구청 문화관광과 안혜영 팀장, 김수희 주무관,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문화도시센터 황유경 센터장, 문화도시센터 시민창조팀 임정인 팀장, 장선미 과장, 박수현 대리, 정지혜 대리, 황진수 대리, 공민정 대리, 조미경 대리

행사일시
2024. 2. 29.(목) 15:00

참여인원
총 36명

주요내용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뮤지션들간의 의견 교류 및 네트워킹

02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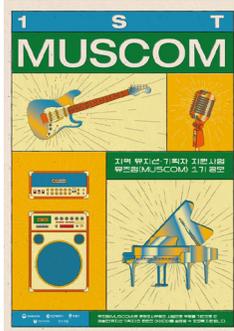
사업명
지역 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

사업내용
지역뮤지션 음반제작 및 활동지원

사업목적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 내 아티스트를 발굴하여 지역 음악 생태계 조성

03

21~23년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 결과보고



2021 지역뮤지션 지원 사업 - 뮤즈컴

	뮤지션(뮤즈컴 레지던시)	기획자(뮤즈컴 스페이스)
선정 인원	5팀	7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토링 9회 뮤지션 음원 발매 리:에스컴 음원 발매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앨범 녹음 및 영상콘텐츠 지원 RE:ASCOM LP 제작 참여 지원 창작공간 지원 (디지털뮤직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 내 창작활동 공간과 무대지원 공연 기획 및 실무 활동 지원



2023 지역뮤지션 앨범 제작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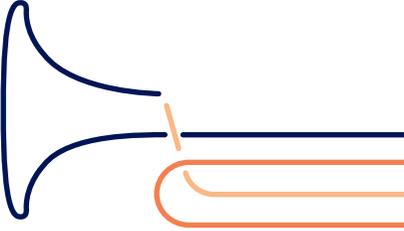
	제작과정 지원형	제작비 지원형
선정 인원	5팀	4팀 1팀 사업포기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원 발매 및 음반 제작 쇼케이스 1회 진행 라이브 영상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이브 영상 예고편 (인스타 쇼츠)제작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원 제작에 필요한 장소, 장비, 인력 음원 제작 과정 어드바이징 세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비 지원 음원 마스터링 별도 지원



2022 지역뮤지션 앨범 제작 지원 사업

	싱글 음원 제작(기성)	싱글 음원 제작(신인)
선정 인원	14팀	7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외공연 <보통날> 관람객 247명 역량 강화 네트워크 1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인, 기성뮤지션 음원 발매 컴필레이션 음반 발매 쇼케이스 1회 진행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비 지원 네트워킹 워크숍 쇼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뮤직랩 야외공연



<h1>04</h1>	<h2>음악 관련 의견 교류</h2>	
<h3>1조</h3>	<p>이규영(전문가), 임정인(시민창조팀장), 정지혜(시민창조팀원), 김다혜, 코비, 은호수, 김형래, 폴오브(한효정)</p>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지역뮤지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 좋았던점
: 앨범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 있었던 점
- 아쉬웠던점
: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이후 단계에 대한 지원이나 연결이 없었던 점

지역뮤지션들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 상시적인 공연 지원 등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 될 수 있는 사업. 레이블 등과의 연계하여 프로모션 지원 사업 같은 사업

거리공연에 대한 의견

뮤지션이 생각하는 거리공연은?

- 개인이 거리공연을 하는 것이 민원이나 대관 등의 어려움이 있음. 때문에 거리공연을 지원해준다면 좋을 것 같음

거리공연 장비를 지원하는게 좋은지 뮤지션 본인이 장비를 지참하는게 좋은지?

- 장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예산안에서 뮤지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함을 갖는게 좋을 것 같음. (ex.장비까지 가지고 온다면 100만원, 장비 없이 출연만 한다면 30만원 등)
- 장비 유무뿐만 아니라 지원받고자 하는 영역이 뮤지션들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함.누군가는 앨범제작 지원을 원할 것이고, 누군가는 마케팅 지원을 원할 것임. 거리공연 지원사업, 앨범 제작 지원사업처럼 지원사업의 주 내용을 정하지 말고 각자가 지원받고 싶은 내용을 기획하여 그 기획안을 토대로 심사, 선정해 폭넓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음 또는 음원제작 ▶ 유통 ▶ 프로모션 등 단계별 지원사업 트랙을 설정하여 뮤지션들이 본인이 원하는 단계에 맞춰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도 좋을 것 같음.

무대공연에 대한 의견

뮤지션이 생각하는 클럽 공연 지원은?

- 공연장 자체적으로 팬이 있는 공간 등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음.
- 이미 음악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공간에서의 공연은 뮤지션 개인이 진행해도 어려운 부분은 아님. 대형카페나 미술관처럼 대중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공간이니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음.
- 이 부분도 트랙을 획일화 시키지 말고 뮤지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음.

<h1>04</h1>	<h2>음악 관련 의견 교류</h2>
<h3>2조</h3>	<p>이진우(전문가), 은한, 김진우, 덕호씨, 신호섭, 박민, 강백수</p>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지역뮤지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 좋았던점
: 뮤지션이 모든 사업을 직접 진행해야하는 경험이어서 좋았음.
- 아쉬웠던점
: 1. 프로젝트(앨범)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타이틀곡에만 집중이 돼서 싱글+싱글+싱글로 발매하다 합본으로 발매하는 식의 방식을 시도해도 좋지 않았을까 함.
2. 음원발매 후 느낌점은 발매 후 다른 활동까지 이어졌으면 좋았겠으나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았던 점은 부평에서 사업 종료후에도 네트워크 이어져서 좋았음.
3. 예산을 집행하려면 서류작업(행정)을 해야하는게 많아 부담스러웠음.
4.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정작 공연준비보단 다른 작업을 해야하는게 어려웠음.

예술인 지원 사업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 여러 기관 정보를 모아서 알려주는 곳이 있어서 수월함 (ex.리악)
- '위아츠' 각종 지원사업의 정보를 모아서 알려주는 단톡방, 문화재단 사이트 내 '타기관사업' 게시판 참고
- 인스타, 참여하고있는 버스킹동호회
- 키워드로 찾아보는 편

지역뮤지션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이 뭐 있을까?

- 공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하면 어떨까? 인천에서 공연은 한 경험이 적음. 주로 서울에서 거리공연사업에 참여 많이 함. 인천에서 공연 지원 기회를 줬으면 함.
-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서 제작한 음악들을 지역 카페 등에 플레이리스트 배포 등 지역에서 널리 들려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음.

거리공연에 대한 의견

40분 이내 장소확보 시 음향을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지?

- 장소가 제일 문제임. 지자체에서 공간(무대)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음.
- 장비나 간접지원도 좋지만, 공연료도 보전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장비에 대한 지원과 소정의 공연료가 지급되면 좋겠음.

뮤지션이 생각하는 거리공연은?

- 지자체 거리공연 사업이 뮤지션에서 도움이 되는가? 근본적 질문을 하고 싶음. 많은 시민들에게 버스킹은 무료공연이라고 인지됨. 관객들이 지불하는 문화가 생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뮤지션의 영리활동 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음. 뮤지션의 생계도 보장되어야하기에 이런 상충되는 상황이 아쉬움.
- 뮤지션 스스로 본인의 몸값을 낮게 생각하는게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함. 청년 뮤지션들 스스로堂堂하게 요구해야함. 문화도시 타이틀을 달았으면 이런 부분 극복 해야함.

무대공연에 대한 의견

공연장 외 클럽 등의 공연무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겨울에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음.
- 실내공연은 모객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 재단에서 적극지원이 있다면 좋고, 아니라면 힘들 것 같음.

인천에 공연할 수 있는 추천할만한 공간이 있는지?

- 송도에 위치, 공연하려는 카페 찾았음. 15평 규모, 타이니데스크 한국편을 생각함.
- 미술선생님인데 음악을 좋아해서 본인 공간에 장비까지 구비되어 있으나 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음.
- 부평 내에 스포츠펍 등에서 참신한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음, 공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업 확장되고 좋겠다고 생각함.

04

음악 관련 의견 교류

3조

최인호(시민연대팀장), 최진석, DJ밀라, 로로(윤현로), 조은세,
여운(고태윤), 씨드스톤(박상도), 이청록, 몽글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지역뮤지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 좋았던점
: 최고의 스튜디오, 최고의 세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함.
- 아쉬웠던점
: 1.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음.
2. 사업참여자 간의 교류 및 네트워킹 자리 필요하다고 생각함.
3. 사업 지원 받으면서 앨범 제작하는 흐름이 급하게 흘러가서 아쉬웠음.
4. 추가적인 앨범 제작 관련 교육프로그램 필요하다고 생각함.

거리공연에 대한 의견

뮤지션이 생각하는 거리공연은?

- 재단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공연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좋지 않다고 생각함.
- 주말에 젊은층이 있고 유동인구 많은 거리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소규모로 여러군데에서 하는 거리공연 사업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영향이 있음.
- 현장 컨트롤해주는 현장 운영 관리 스태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버스킹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단가가 많이 낮춰짐. 금전적인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함.
- 유동인구가 적은 거리에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아쉬움.
- 돈을 더주고 개인 장비를 지참하는게 뮤지션 입장에서 좋음.

무대공연에 대한 의견

무대공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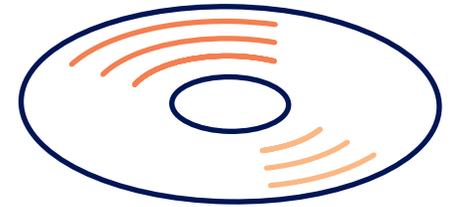
- 악기들고 가야하는 경우에는 제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부대시설이 있고 없과의 차이도 크다고 생각함.
- 공연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만한 방안이 필요함.
- 노래 없이 연주로만 무대를 진행하는 아티스트는 펍에서 공연하기가 애매함.

04

음악 관련 의견 교류

4조

황유경(문화도시센터장), 뷰렛, 이명선, 박윤선, 박현우, 이현영, 혜원, 이보람



지역뮤지션 및 기획자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

지역뮤지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 좋았던점
: 오랫동안 활동을 멈춰있던 상황에서 부평구 구민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됨.
- 아쉬웠던점
: 1. 예술가들이 서류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간소화시키고자 함.
2.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사용해보니, 뮤지션 스타일에 제작하는 내용이 따라 금액이 생각보다 애매한 금액이다 보니 뮤지션마다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지원사업이었으면 좋겠음.
3. 부평구 관내 아티스트가 많은 거에 비하면 지원하는 팀양이 너무 적은 것 같음.
4. 콘텐츠를 만들때 도움을 공연이라던지, 부평과 연계 갈 수 있는 홍보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할 수 있는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음 좋겠음.
5. 음악에 대한 지원은 사실 예술인은 전문가라고 생각함. 다만 서류작성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컨설팅트를 받을 수 있는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음.
6. 부평에 뮤지션끼리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음.

예술인 지원 사업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 지인소개, 문자발송
- 뉴스 발송, 아트누리 사이트, sns광고

거리공연에 대한 의견

뮤지션이 생각하는 거리공연은?

- 요즘은 거리공연에 대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공연이 휘발될 뿐 음악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함.
- 부평에서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많지 않다고 생각함. 요즘 흥대도 거리공연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무대공연에 대한 의견

공연장 외 클럽 등의 공연무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관객 없이 진행하는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 관객만 있다면 공간이 어디든 하고 싶을 것 같음.
- 오래 활동한 기성 가수들은 펍 같은 공연에서 안하려고 함. 그 이유는 신인들이 주로 그런공간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려함. 그친구들의 설 자리를 우리가 채울수는 없으니 만약 기관에서 거점 공간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성세대 가수와 신인가수들과 섞어서 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음.
- 실내 페스티벌을 개최해주시면 부평 내에 클럽이 많으니 오히려 재밌게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듦. 뮤지션이 클럽 공연을 하는 건 팬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

04

음악 관련 의견 교류

활동사진

